

문학: 공부할 때 인물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어떤 행동을 했는가+무슨생각을 하나 정도 파악한다. 그리고 기출이면 충분하다. 문학은 사설풀생각 L L

“모두가 판에 박은 듯이 똑같은 신문을 무엇 하러 세 가지나 보낸 말이야. 고양이도 낮짜이 있더라고 좀 엄치가 있어야지. 한 번만 더 넣었다가는 가만두지 않을 테야.”

어떻게 붙잡았는지 아내가 배달아이를 잡아 닭달하는 소리였다. 영하는 혼자 이불 속에서 비실 웃었다. 그것은 바로 신문기자인 자기한테 하는 소리로 들렸기 때문이다. 간접적이거나 아내한테서까지 그런 소리를 들으니 절로 웃음이 나왔다.

신문배달하는 애가 신문을 세 개나 넣다가 잡혔다. 영하(아마 주인공)는 신문기자. 왜 웃었을까?-절려서. 이정도 파악. '아내한테서까지'-다른 사람도 이런소리한다.(=사회상 혹은 동네의 특징일지도 모른다!) 이정도 까지 하면 제일 좋다.

“그냥 놔두고 신문대만 내지 말아요.”

“저 애들이 얼마나 뻔뻔스러운 애들이라고 그렇게 쉽게 되는 줄 아세요? 이달치만 줄 테니 더 넣지 말고 신문대를 주며 달래보기도 하고, 신문을 모아놔다 돌려주기도 했지만 견뎌낼 재간이 없다고요. 아무리 꺼진 거지도 저 애들 같진 않을 거예요. 구걸을 해도 유분수지, 벌써 여섯 달째라고요.”

꺼지다.. 단어뜻은 모르지만 독하다? 이정도 파악 되겠다. 찾아두기는 해야 한다.

“그 구걸하는 돈으로 우리도 월급을 타 먹고 있으니 너무 구박 말아요.”

영하는 신문기자니까!

“하지만 아무 필요도 없는 신문을 세 가지나 보잔 말인가요?”

아내는 이만저만 속이 상한 게 아닌 모양이었다.

그 뒤부터 신문이 날아들어 창에 맞고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 영하는 그 신문이 자기 가슴에라도 떨어지는 듯 가슴이 철렁했다. 그때마다 또 아내가 쫓아나갈까 겁이 났다. 제발 쫓아나가지 말았으면 하고, 영하는 그 배달아이보다 더 조마조마하게 가슴을 조였다.

신문은 자신이 돈을 버는 수단이고. 그것으로 배달아이라도 돈을 버니까... 배달아가 욕먹으면 자기도 욕먹는 것 같다고 생각.(문제에서의 워당:동질감)

하루는 무슨 일로 일찍 집을 나가다가 바로 대문 앞에서 그 배달아이와 부딪치고 말았다. 신문을 접어 비행기를 날리려는 순간이었다.

“야!”

배달아이는 힐끔 돌아보더니 후닥닥 도망쳤다. 마치 무얼 훔치다가 들킨 꼴이었다. 진창까지 밟으며 정신 없이 뛰었다. 운동화 한 짝이 벗겨져 공중으로 튕겨 올라갔다. 신을 집더니 제대로 신지도 않고 손에 들고 뛰었다. 골목을 거의 빠져나가서야 이쪽을 돌아보며 신을 신었다. 누구한테 붙잡혀 뺨이라도 얻어맞은 적이 있지 않았을까 싶었다.

이미 와이프한테 혼났으니까 영하한테도 많이 혼날 것이라 생각. 운동화 한짝이 벗겨져 공중으로 튕겨 올라갈 정도로 도망간다... *기출:불모지| 선지. 인물의 복장으로 심리를 설명할 수 있다..

그 며칠 뒤 성탄절 아침이었다. 전날 저녁에 술이 많이 취했으나 다섯 살짜리 아들 녀석이 고장 난 장난감을 고쳐달라고 극성을 피우는 바람에 일찍 눈이 뜨였다. 외할머니며 이모들한테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이었다.

그때 골목에서 ‘xx일보요’하는 소리가 났다. 영하 집에서 제대로 구독을 하고 있는, 영하 회사의 경쟁지였다. 그 역시 신문은 아직 날아들지 않고 있었다. 언제나 그 신문이 먼저 날아드는데 오늘은 좀 늦는 모양이었다.

순간, 지난번 흙탕에서 튕겨 오르던 그 배달아이의 신발이 머리를 스쳤다. 영하는 거의 반사적으로 일어나 포켓을 뒤졌다. 오천 원짜리가 나왔다. 천 원짜리를 찾았으나 없었다. 그대로 손에 쥐고 대문간으로 나갔다. **신문대하고는 상관없이 운동화나 한 켤레 사 신으라고** 할 참이었다. 골목에는 눈이 허영게 쌓여 있었

xx일보요 하니 배달아이가 생각났고, 배달아이를 생각하니 배달아이의 신발이 생각났고, 그러니 신발을 사주려했다.. 당연한 얘기. 다. 저쪽에서 배달아이가 달려오고 있었다. 달려오던 아이가 영하를 보더니 우뚝 멈춰 섰다. 대번에 주눅이 들어 조그맣게 오그라들었다.

“이제 안 넣을게요.”

잔뜩 겁먹은 눈으로 영하를 보며 애원하듯 했다. 골목을 뛰어다녀 얼굴이 벌겍게 익어 있었고, 더운 김을 내뿜는 코끝에는 방울방울 땀방울이 돌아 있었다.

“그게 아냐.”

“이제 정말 안 넣는다니까요.”

오해: 영하는 혼내려고 한건 아니지만 아이는 혼내려는줄..

*오해는 생각보다 자주나온다. 불모지에서 오해가 있었으며 이외에도 몇 개 존재한다.

소년은 금방 영하가 덜미라도 낚아채지 않을까, 저쪽 담에다 등을 대고 한 걸음 한 걸음 빠져나가며 말했다. 눈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아냐, 내 말 들어봐.”

영하는 돈을 보이며 말했다.

“정말 안 넣을게요.”

소년은 거의 울상으로 슬금슬금 영하 앞을 지나더니 후닥닥 뛰었다. 저만큼 내뺀다가 힐끔 돌아봤다. 순간, 눈길에 미끄러져 발랑 나가떨어졌다. 눈 위에 신문 뭉치가 흩어졌다. 소년은 이쪽을 힐끔거리며 멍멍 멍멍 신문을 거머쥐었다. 다시 이쪽을 돌아보며 도망쳤다. 영하는 소년이 사라진 데를 보고 서 있었다. 뉘나간 꼴로 한참 동안 서 있다가 대문을 닫고 들어왔다.

다음날부터 그 신문은 날아들지 않았다. 그 소년의 겁에 질린 눈만 커다랗게 남아 있었다. 그 눈이 자꾸 떠올랐다. 자리에 누울 때도 떠오르고 밥을 먹을 때도 떠올랐다. 기사를 쓸 때도 마찬가지였다.

영하는 그때부터 고향에 있는 자기 몫의 논밭이 떠올랐다. 그 얼마 뒤 음력설에 아내와 함께 고향에 다녀오면서 **넌지시 시골에서 살면** 어떻겠느냐고 했다. 아내는 웃으며 농담으로 받아넘겼다. 영하는 정색을 하고 말했다. 아내는 지금 그게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는 눈으로 영하를 돌아보며 픽 웃고 말았다. 고향에 가면 언제나 그랬지만 그때는 더 푸근한 안도감이 들었던 것이다. 어디 먼 데로 나돌며 잔뜩 지쳐 빠져 자기 집이라도 돌아온 기분이었다. 사실은, 영하도 말로만 그랬지 여태 몸담아 오던 직장을 버리고 고향으로 내려간다는 게 빈 밥상 물리듯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었다.

[중략 부분 줄거리] 영하는 아내와 함께 도시 변두리로 이사하지만, 신문기자를 그만두지는 못한다. 그곳의 노인들에게서 또철이의 불효 행각을 고발하는 기사를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초고를 작성한다.

편집국에 들어섰다. 어쩐지 신문사 안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느껴졌다. 모두 입을 봉하고 담배만 빼꼼거리고 있었다. 항상 생글거리던 문화부 여기자마저 얼굴이 굳어 있었다. 대밭에서 와글와글 지저귀던 참새 떼들이 갑자기 지저귀던 소리를 뚝 그치는 경우가 있다. 위험을 감지하는 순간이다. 그 정적 사이에서 한두 마리가 짹짹거리다. 다시 지저귀거나 모두 와르르 날아간다. 그 한두 마리가 짹짹거리는 소리는 괜찮다거나 위험하다는 신호인 모양이었다. 들판에서 끼룩거리며 먹이를 먹던 기러기 떼도 마찬가지다. 망보던 녀석이 뭐라 길게 소리를 하면 먹이를 먹던 기러기 떼가 모두 고개를 쳐들고 소리를 뚝 그친다. 바로 그런 분위기였다. 그때 **국장실에서 정치부장이** 나왔다. **우거지상**이었다.

“**제길, 그런 것도 못 쓰면 무얼 쓰란 말이야?**”

정치부장은 의자에 엉덩이를 내던지며 창밖을 향해 의자를 핑글 돌렸다. 담배에 불을 붙여 길게 연기를 내뿜었다. 정치부장인데 못쓰게한다.. 검열이 있나보다 충분히 생각가능하다. 자유가 없다-억압.

*담배는 어지간하면 '고민'과 같은 단어가된다.

영하에게 갑자기 떠오른 게 있었다. 신문에 내기만 하면 저 죽고 나 죽겠다고 독기를 피우던 또철이의 눈이었다. 영하는 **주머니에서 기사를 꺼내** 슬그머니 휴지통에 넣어버렸다. 그가 무섭다기보다 귀찮았다. 뒤미처 골목 영감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좁쌀영감의 차가운 눈이 맨 먼저 떠올랐다. 셰퍼드의 시퍼런 눈도 떠올랐다. 갑자기 옛날 신문배달아이의 공포에 질린 눈도 지나갔다.

- 송기숙, 「개는 왜 짖는가」 -

